

여야, 4·10 총선 뒷마무리 일정 '분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당...이달 말까지 완료 민주, 원내대표 선거前 민주연합 합당 마무리 새로운미래, '이낙연 악마화' 강력 대응 방침

여야 각 정당이 4·10 총선 뒷마무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합당 수임기관이 앞으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국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갖고 태어난 한 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 모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5월 말 출범할 22대 국회의 여당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108명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양당 합당

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별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도 시작했다. 민주연합 운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회 시판 토론회,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5월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합 윤 공동대표는 "합당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5월3일 이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



발언하는 운영덕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의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연했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을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려는 '의원

귀주'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흡수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정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는 총선 패배의 원인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잘못된 부분과 패배 원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며 "늦어도 7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이날 제1차 총선 백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총선백서위원장은 전병헌 전 의원이 맡는다. 특히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악마화', 당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내 '진실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실왜곡대책위원장은 장덕천 변호사가 맡는다. /김진수 기자

與 낙선자들 “중·수·청” 못잡으면 미래없다

“우린 무능한 조폭,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로 보였다”

4·10 총선에서 '합'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국민의힘 낙선자들은 선거 패인으로 '심판론 패착'과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설득 실패를 공통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낙선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진수(인천 서구갑)·이승환(서울 중랑을)·함운경(서울 마포을)·박진호(김포갑)·류제화(세종갑) 전 후보 등이 참석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린 그에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

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며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1년에 약 30만명씩 죽고 있고, 5년 뒤엔 150만명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서 그만큼 인원을 데려오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보수 의석수는 두 자릿수로 내려갈 것이고, 민주당 주도 7공화국 출범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전 후보는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뻗기 위해서는 영남의 배려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와 비대위, 차기 원내지도부를 구성할 때 영남의 헌신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딤나"라며 "의대 증원 2천명을 선거 기간에 불속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량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 전 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상위 1%, 하위 50% 연합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동·미추홀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회의장 선출 '과반득표'로 강화

결선투표도 도입...선관위에 진선미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쟁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제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국회의장, 부

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從多數)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제적 과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결선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 득표자와 차

점차가 결선을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김진수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에 엇갈린 반응

與 "소통의 적임자"...野 "국민 눈높이 안맞아"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을 가감 없이 듣고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대통령의) 절박한 의지"라며 "다년간의 기자 생활과 5선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야말로 소통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비윤(비윤석열)계 김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 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물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으로,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 의원"

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 실장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정 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에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